



비슷하고 헷갈리는 세 단어 HAZARD(유해), RISK(위험), HARM(해)

Hazard(유해)	Risk(위험)	Harm(해)
물질, 환경 고유의 성질이 내포한 본질적 위험 ex) 본질적으로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위험에 '확률'의 개념이 포함된 것. ex) 유해 화학물질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Risk'에 포함된 확률이 실현돼 인체나 환경에 입힌 손상 ex)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입은 상처

환경보건,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에서는 '해 Harm', '유해 Hazard', '위험 Risk'이 세 단어가 종종 혼용된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의미와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산업보건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단어로 그 명확한 뜻을 설명할 수 있다. 'Hazard'는 'Harm'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Risk'는 'Hazard' 속의 잠재적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이다. 'Harm'은 'Risk'에 포함된 가능성이 실현돼 인체나 환경에 가해지는 손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Harm'을 줄 수 있는 'Hazard'이다. 그러나 빌딩 근무

자에게 독사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 즉, 독사에 의한 'Risk'는 제로에 가깝다. 이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독사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빌딩에서 독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빌딩 근무자가 깊은 산으로 등산을 간다면 'Risk'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Risk'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앞에서 'Risk'는 'Hazard'의 'Damage'가 실현될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Risk'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Hazard'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Hazard'가 실현될 가능성, 즉 노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Hazard'를 제거하지 않아도 'Hazard'에 노출되지 않으면 'Risk'는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